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5면)



채승우·박지효 송파구의원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관련 주민간담회

송파구의원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과 박지효 의원(국민의힘,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은 지난 10월 19일(월) 오후 4시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택공급 계획과 업무시설용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주민들에게 제시된 주택공급 계획의 이행 여부와 업무시설용지에 추진되는 시니어 레지던스의 적정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주민들은 임대주택 1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당초 계획을 이행하고 업무시설용지 역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발 취지에 부합하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회는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정지인·관공서 주재 회의 정례회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활동사항 공개 △현 가락2동주민센터 부지 활용방안 공개 등을 요구했다.

채승우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 앞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원안 이행을 촉구하는 현장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했다.

박지효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사업이 아니라 가락동 일대의 주거환경과 지역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개발계획이 변경된다면 그 이유와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승우 의원은 10월 21일 열리는 제33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주택공급 원안 이행과 업무시설용지의 시니어 레지던스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초 약속한 개발계획의 이행과 투명한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청